

경마

10

2019년 7월 5·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경마 포커스 | 서울-부경 ‘시리즈 경주’ 자존심 싸움

후반기 서울 약진…부경 ‘슈퍼루키’가 뒤집나?

전반기 ‘글로벌축제’ ‘딤마인드’ 우수마 하반기 서울 ‘가온챔프’ ‘문학치프’ 강자 이달부터 2세마 데뷔…슈퍼루키 관심

서울과 부경의 경주마들 자존심이 걸린 ‘시리즈 경주’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조건별 최우수마를 선발하고 경마의 흥미도를 제고하기 위해 시리즈 경주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 vs 부경, 누가 웃을까

상반기에 종료된 시리즈에서는 서울과 부경이 우수마를 1두씩 배출하며 팽팽히 맞섰다. 국산 3세 암수 최강자를 가리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에서는 서울의 ‘글로벌축제’가, 국산 3세 암말 최강자들의 경쟁 트리플티아라 시리즈에서는 부경의 ‘딤마인드’가 누적 승점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서울의 약진이 예상된다. 서울의 ‘가온챔프’가 스프린트 시리즈 1,2번째 관문을 모두 승리했고, 서울의 ‘문학치프’는 스테이아 시리즈인 YTN배 우승과 부산광역시장배 준우승으로 승점 46점을 누적하며 현재 1위다. 9월에 열리는 국제경주 코리아컵과 코리아 스프린트에서 두 시리즈의 최우수마가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3세 이상 암말 최강자를 가리는 퀸즈투어 시리즈 또한 2017년에 이어 재도전한 서울의 ‘실버울프’가 첫 번째 관문이었던 6월 독섬배에서 5마신(약 12m)의 대치승을 거두면서 서울이 우세하다. 퀸즈투어 시리즈의



조건별 최우수 경주마를 선발하는 시리즈 경주가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트리플크라운 시리즈 1위를 차지한 서울의 ‘글로벌축제’(왼쪽)와 트리플티아라 시리즈 1위 부경의 ‘딤마인드’.



돌아온 ‘돌콩’, 부산광역시장배 우승

한국으로 돌아온 후 3개월간의 휴양을 마친 ‘돌콩’(미, 수, 5세)이 팻츠런파크 부경에서 6월 30일 펼쳐진 부산광역시장배 우승을 차지했다. 돌콩은 올해 3월 두바이월드컵에서 한국 경마 최초로 결승전까지 진출했다. PARTⅡ 국가 소속으로는 유일하게 결승까지 오른 경주마다. 부산광역시장배에는 서울의 ‘청담도끼’, ‘문학치프’, 부경의 ‘뉴레전드’ 등 내로라하는 장거리 강자들이 모두 출전했다. 돌콩은 4코너까지 중반 그룹에서 힘을 아끼다가 직선주로부터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결승선을 단 100m를 남겨두고 순식간에 3두를 제치며 2위 문학치프와 3/4마신(약 1.8m)차로 승리했다.

이현종·송재철 기수, 이달부터 프리 전향

군제대 후 올해 경주마로 돌아와 팻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하는 송재철(28), 이현종(25) 기수가 7월부터 프리로 전향했다. 2013년 데뷔한 송재철 기수는 2015년과 2017년 2번이나 페어플레이 기수 상을 수상했으며 제재 내역이 적고 깔끔한 경주 운영 매너가 특징이다. 2016년부터 1년 8개월간 프리로 활동한 적 있으며, 당시 데뷔 이후 최고 승률 11.4%를 기록했다. 이현종 기수는 2015년 데뷔해 311일 만에 40승을 채우며 당시 기준 최단 기록을 세웠다. 2016년 최우수 신인가수를 수상하며 대형신인으로 성장했다. 올해 4월부터 다시 기수로 돌아왔으며, 복귀 주에 3승을 차지하며 건재한 실력을 자랑했다.

1200m 단거리 강자 ‘마스크’, 눈에 띄네

7월 팻츠런파크 서울 ‘11경주’ 분석

단거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국산마 ‘마스크’의 활약이 기대된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 팻츠런파크 서울에서 7월 제11경주로 1등급 경주마들의 1200m 단거리 경쟁이 펼쳐진다. 산지와 나이, 성별 제한 없이 다양한 경주마가 출사표를 던졌다. 총상금 1억1000만 원이 걸려있다.

●마스크(수, 4세, 한국, R99, 임봉춘 조교사, 승률 31.3%, 복승률 68.8%)

팻츠런파크 서울에서 활동하는 4세 국산마 에이스로 최근 3회 수득상금이 출전마 중 독보적으로 높은 약 2억5000만 원이다. 올해 세계일보배 우승, 서울마주협회장배 준우승 등 단거리 대상경주에서 연이어 입상하며 단거리 강자로 부상했다.

●글로벌캡틴(수, 3세, 미국, R88, 정호익 조교사, 승률 66.7%, 복승률 66.7%)
데뷔전부터 파죽의 4연승으로 3개월 만에 1등급으로 승급했다. 6월 SBS스포츠 스프린트에서 첫 대상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경은 SLTC(말레이시아 실롱거 터프클럽) 트로피와 김해시장배를 통해 각 지역의 대표 2세마를 가린 뒤 12월 1일 브리더스컵에서 모두 모여 맞붙는다. 경주마다 승점을 부여해 최고점을 기록한 최우수마에게는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수여된다. 주바나 일 시리즈에서 활약을 보인 경주마들은 3세 시즌에 트리플 크라운 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도 하반기에는 최강팀 선발전과 ‘Road to G1 Premier’ 등으로 흥미를 더

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최강팀 선발전은 기존 토너먼트 방식에 리그전의 형식을 결합해 거리·산지별 우수마 보유팀 선발전 성적을 강화했다. 7월 28일 시행하는 오너스컵(Owners’ Cup)을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 대상경주 6개의 성적을 종합해 한국 최고 경주마를 선발하는 ‘Road to G1 Premier’도 시행한다. 해외 경마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를 가리는 성격으로, 상위 3두는 해외 원정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3위를 차지하며 선방했다. 출전마 중 나이가 가장 어리지만, 데뷔 후 받은 최저 부담중량인 51kg를 배경받아 유리할 수 있다.

●글로벌뱅크(수, 4세, 한국, R87, 최상식 조교사, 승률 25.0%, 복승률 56.3%)
데뷔 후 기록 없이 좋은 성적을 받고 있으며 16번 출전해 13번 3위안 입상했다. 출중한 선행력을 앞세워 단거리 위주로 경주를 참가하고 있다. 올해 1월 출전한 1200m 경주에서도 출발부터 결승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승리했다.

●다이아삭스(수, 5세, 미국, R98, 지용철 조교사, 승률 16.7%, 복승률 55.6%)

지난해 5번 출전해 1번 우승, 4번 준우승이라는 좋은 성적으로 1등급에 올라섰다. 휴양을 마치고 7개월 만에 출전한 6월 경주에서 4위로 순위상금을 획득하며 복귀전을 무난히 마쳤다. 본격적인 실력발휘가 기대된다.

●리드메니(암, 5세, 한국, R83, 박윤규 조교사, 승률 17.2%, 복승률 31.0%)
수말들의 강세가 예상되는 이번 경주의 암말 기대주다. 성적에 다소 기복이 있지만 2018년 일간스포츠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우승하며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이번 경주에서도 복병마가 될 수 있다.

정용운 기자



토토언더오버 25회차 5일 발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도의 인기 배당률 게임 ‘토토 언더오버’가 5일 오전 9시30분부터 25회차의 발매를 시작한다.

3000원대의 평균참여금액으로 소액문화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토토언더오버는 승패를 맞히는 방식에서 벗어나 축구와 농구, 야구, 배구 등을 대상으로 5경기 혹은 7경기를 선정해 홈팀과 원정팀 각각의 최종득점이 주어진 기준값과 비교해 낮은지 혹은 높은지 등 다양한 상황을 예상해 맞히는 배당률 게임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투표 방식의 경우 주어진 각 팀의 최종득점이 기준값 미만이라면 언더(U)에 표기하면 되고, 초과한다면 오버(O)를 선택하면 된다. 25회차는 7일 열리는 국내프로야구 KB O리그 5경기과 국내프로축구 K리그1 2경기를 대상으로 토토판들을 찾아간다.

자세한 일정을 살펴보면 KBO리그에서는 두산 베어스-SK 와이번스(1경기)전과 NC 다이노스-삼성 라이온즈(2경기)전, KIA 타이거즈-LG 트윈스(3경기), 키움 히어로즈-롯데 자이언츠(4경기)전 그리고 한화 이글스-KT 위즈(5경기)전이 선정됐고, K리그1에서는 전북 현대-상남FC(6경기)전과 수원 삼성-제주 유나이티드(7경기)전이 뽑혔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축구팬 82% “전북, 성남에 압도적 승리”

축구 승무패 24회차 K리그·J리그 대상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도는 “6일과 7일 열리는 국내프로축구 K리그1(6경기)과 일본프로축구 J리그(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도토 승무패 24회차 중 전복 현대-상남FC(1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82.54%가 안방 경기를 치르는 전북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무승부 예측은 11.11%로 나타났고, 원정팀 성남의 승리는 6.35%를 기록했다.

K리그1 선두 전북이 성남과 경기를 펼친다. 현재 전북은 승점 38(11승5무2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동일한 승점을 기록 중인 2위 FC서울과는 득실차에서 앞서고 있고, 3위 울산 현대(승점 37)와는 승점 1 차이다.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전북은 경기력이 한 풀 꺾인 모양새다. 김신욱(8골·3도움)과 문선민(5골·2도움) 등이 꾸준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지만, 최근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데다 최근 K리그1에서도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를 맛보지 못했다.

승점 21(5승6무7패)로 리그 8위에 위치하고 있는 성남은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개막 초반 강등 후보 1위로 거론됐으나, 예상을 깨고 K리그1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성남의 김현성은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결승골을 기록하는 등 알토란 활약을 펼치는 중이다.

이어 안방에서 인천 유나이티드를 맞이하는 울산 현대는 84.01%를 획득해 K리그1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무승부 예상과 인천의 승리 예상은 각각 9.10%와 6.89%로 집계됐다. 김보경(6골·4도움)과 주니오(6골·3도움)가 활약하고 있는 울산은 지난달 30일 서울과의 맞대결에서 2-2로 승부를 결정짓지 못했지만, 여전히 팽팽한 선두권 경쟁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최근 7경기에서 1승2무4패로 저조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6월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승리도 거두지 못하면서 최하위인 12위로 내려앉은 상태다.

FC서울과 수원 삼성도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나타났다. 득점 1위(9골) 페시치가 이끄는 서울은 강원FC전에서 69.04%의 투표율을 기록해 우세한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됐다. 무승부 예상과 강원 승리의 예상은 각각 19.73%와 11.23%로 나타났다.

1, 2위 대결…“두산 6~7점, SK 4~5점” 1순위

야구토도 스페셜 60회차 중간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도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도는 5일 열리는 KBO리그 3경기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도 스페셜 60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키움 히어로즈-롯데 자이언츠(3경기)전에서 키움의 우세가 점쳐졌다고 밝혔다.

자세한 투표율을 살펴보면 홈팀 키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9.20%의 지지를 받았고, 원정팀 롯데는 37.24%를 획득했다. 같은 점수대 항목은 13.58%로 나타났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키움(6~7점)-롯데(2~3점)이 5.24%로 가장 높았다.

1경기 두산 베어스-SK 와이번스전에서는 두산(41.19%)과 SK(42.75%)의 투표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와 눈길을 끌었다. 최종 점수대의 경우 두산(6~7점)-SK(4~5점) 두산 승리가 5.21%로 최다였고, 두산(2~3점)-SK(4~5점) SK승리가 5.03%로 뒤를 이었다.

2경기 한화 이글스-KT 위즈전의 경우 홈팀 한화가 44.42%를 얻었고, 원정팀 KT는 40.05%를 획득했다. 같은 점수대는 15.53%로 나타났으며, 최종 점수대 예상



은 한화(6~7점)-kt(2~3점) 한화 승리가 5.83%로 1순위를 차지했다.

야구토도 스페셜 60회차 게임은 경기 시작 10분 전인 5일 오후 6시2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적중결과가 공식 발표된다.